

오전(1부) 대방동 7시
오전(2부) 7시
주일예배 오전(3부) 10시
오후(4부) 3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30분
서울 교회 02)533-9191
장소 : 강서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오전(1부) 7시
오전(2부) 10시
주일예배 오후(3부) 3시
저녁예배 7시
금요일예배 (저녁) 8시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홍우걸럼

범사에 감사하라

영국 제임스 1세의 종교탄압이 극심해지자 102명의 청교도들은 종교의 박해를 피해 영국 땅을 떠나기로 결정했다. 1620년 9월, 그들은 7개월 동안 노동으로 사들인 메이플라워호에 몸을 싣고 오직 신앙의 자유를 찾아 출발한다. 두려움도 있었지만, 설렘이 더욱 컸다. 그러나 그들 앞에는 거센 풍랑이 놓여 있었고, 추위와 배고픔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끝이 아니었다. 65일 만에 가까스로 도착한 아메리카에 숨은 복병이 있었으니 바로 풍토병과 자신들의 땅을 지키려는 인디언 원주민들이다. 이로 인해 동료 44명이 죽는 아픔도 맞는다. 다행히 이듬해 봄, 이들이 침입자가 아님을 인식한 인디언 추장으로부터 감자와 옥수수 종자를 얻어 첫 농사를 지었고, 1621년 11월 마지막 목요일에 첫 수확한 것으로 감사예배를 드렸다. 이것이 추수감사절의 유래다.

추수감사절은 단지 수확에 따른 감사제가 아니다. 그들은 여전히 힘든 상황에 있었지만, 서툰 농사로 수확이 많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송한 것이다. 즉 추수감사절의 참된 의미는 '범사에 감사하라'(살전5:18)는 말씀과 일치하는 것으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는 것에 그 의미를 둔다.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듯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 감사하는 것이 진정한 감사다. 불평과 원성이 나오는 상황에서 그 입을 막고 마음을 돌려 감사하는 것이 참 감사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도 없으며 우리에게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찌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합3:17~18)라고 한 하박국 선지자처럼.

힘들고 어려운 중에 있는가? 병중에 있는가?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자. 힘든 중에 감사한 청교도들에게 최고의 나라, 미국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당신에게도 최고의 것으로 안기시리라.

올해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선한목자는 양을 위해 죽노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그분의 희생의 사랑이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요15:12~14).

목사님은 기도원에서 2주간의 목사후보생 교육을 마치시며 "선한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는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을 절대 잊지 말라고 당부하셨다. 예수님의 뒤를 따라간다는 것은 철저한 자기부인, 곧 희생이 전제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임을 강조하신 것이다. 목사님은 13명의 목사후보생들을 선한

이 고집 받은 기적의 역사가 그 표적이라 믿는다. 그들이 2주간 가졌던 소중한 고집진 경험을 기억하고 잊지 않는다면 평생 믿음의 지표로 그들 가슴에 깊이 새겨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감사하고 또 감사한 일이다.

추수감사절을 맞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할 일이 무엇이겠는가? 죄인으로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당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사랑하사 진히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시고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희생의 사랑 아닐까? 죽음보다 강한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었고, 영원한 생명을 보장 받았으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았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복의 완성이요, 진정한 성공이다. 생사의 갈림길에서 과연 무엇이 중한지 깊이 유념할 일이다.

우리가 믿지 않는 일가친족들을 위해 기도하고 전도하려 애쓰며 번민하는 이유도 그들이 세상을 떠날 때 극명해진다. 다른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가 과연 구원을 받아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겠는가' 하는 그 문제만이 가장 중요하고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의 확신과 천국의 소망과 기대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미 성공자들이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생활 속에서 겪는 여러 가지 일들은 다 부차적인 문제일 뿐이다. 그러면 좋고 안 그래도



2주간의 교육을 마친 13명의 목사후보생들
"나는 선한목자라 선한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요10:11)

목자로 양육하기 위해 전심전력을 다하셨다. 통상의 절차대로 진행된다 해도 누가 뭐라 하지 않을 일이지만, 당신 스스로 친히 모범을 보이며 칠순의 연세에 감당하기 어려운 과정을 그들과 함께 하셨다. 오직 한 가지, 그들이 목사님 자신보다 더 능력 있고, 더 하나님께 쓰임 받은 선한목자로 성장해가길 바라는 염원에 서다. 목사님의 수많은 가르침을 넘어 목사님이 행동으로 보여준 목자의 길을 성심으로 따라간다면 목사님의 염원도, 그들을 위해 성도들이 함께한 기도도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믿는다. 당뇨, 혈압, 암 수술 후유증, 공황장애 등 여러 가지 질병을 앓고 교육에 참가한 후보생들이 7일 금식과 모든 교육과정을 거치며 깨끗

막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어찌 다 기록할 수 있을까' 고백한 랍비 마이어의 유대 시 [Hadamut]에서 비롯된 찬송가 404장(새찬송가 304장)은 하나님을 아버지 삼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주에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헌시로 늘 눈물과 감격으로 부르고 있다. 우리가 단 하루 한시도 잊지 않고 감사할 일은 바로 구원의 감격이다. 이 땅에서 남보다 한 평 더 큰 집에 산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다. 더 좋은 학교에, 더 좋은 직장에, 더 많은 돈을 번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다. 제아무리 세상의 부귀와 권력과 명예를 누리고 있다고 행복한 것도 성공한 것도 아니다. 우리가 죽음 앞에서 온전히 구원을 이루는 일이야말로 행

상관없는 일들로 근심 걱정하며 다툼과 시기와 분쟁을 일삼는 어리석음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게 결코 온당치 않다.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보유한 하나님의 아들, 딸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내가 주님이 은혜로 주신 구원을 온전히 다 이루었다고 당당히 고백하며 자랑할 수 있으려면 날마다 감사하는 삶, 구원의 감격을 늘 기억하는 삶, 또한 "나는 주를 위하여 나의 편안함을 거부한다."는 목사님의 말씀처럼, 나를 희생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삶을 기꺼이 감내해야 한다. 이것이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믿는다.

한은택 목사

henry8829@naver.com

추계산상집회

11월 25일(월) ~ 28일(목) 장성예수중심기도원
호텔예약: 11월 19(화) 오전 10시 정각(www.jcc.tv)
문의: 02-533-9191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고전4:9~21)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결혼학’ 박사라는 사람이 강연을 한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 박사는 결혼의 정의부터 결혼의 장단점 등등 거침없이 이론을 토해냈습니다. 강의가 거의 마무리 되어갈 때 즈음 박사가 질문을 받겠다고 하자 나이 드신 분이 손을 번쩍 들고는 “그런데 박사님은 결혼하셨습니까?”라고 질문했습니다. 그 박사는 머리를 긁으며 “아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노인이 “헛강의 들었구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경험이 있어야 확신이 있는 겁니다. 근거가 있어야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세일즈맨 중에 가장 잘 파는 사람은 자신이 파는 물건을 직접 써보고 경험한 자가 아니겠습니까?

제가 ‘귀신의 정체가 불신자의 사후의 영’이라는 것에 확신을 갖는 것은 바로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귀신을 쫓아보면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 스스로 밝힙니다. ‘누구 아버지다.’, ‘누구 시어머니다.’ 하고 그것들이 떠들어대는 것을 여러분도 많이 보았을 겁니다.

빛이 오면 어둠은 떠나간다

제가 왜 교단에서 제명이 되고, 이단의 괴수라는 등 별소리를 다 들어왔습니까? 이는 바로 제가 귀신을 쫓기 때문이고, 그 귀신의 정체가 ‘불신자의 사후의 영’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정통이라고 하는 측에서는 ‘타락한 천사가 귀신’이라는 데 이에 반(反)한 거지요. 그러나 제 주장을 굽힐 수 없는 것은 제가 고집이 세기 때문도 아니고, 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서도 아니고 제가 직접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의 경험을 어떤 문화적인 지식 앞에 팔아먹는 자가 아니겠습니까? 귀신을 쫓아보면 압니다. 쫓아보면 귀신의 정체가 무엇인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 귀신의 존재가 ‘불신자의 사후의 영’인가, ‘타락한 천사’인가는 구원과는 무관합니다. 아담이 여자나 남자나 그것이 구원과 무관한 것과 마찬가지로입니다. 그럼에도 이것을 밝히 말하는 것은, 정체를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귀신에 대해 많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9장 25절을 보면 “예수께서 무리의 달려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병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고 쓰여 있습니다. 예수님이 ‘병어리 되게 하고 귀먹게 만든 귀신아’라고 하지 않으시고, ‘병어리 되고 귀

먹은 귀신아’라고 하신 것은 그 귀신 자체가 병어리이고 귀먹은 존재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육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사는 육체가 없는 존재이고, 마귀는 천사장이 타락한 것이니 역시 육체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 고로 귀먹을 수도, 병어리가 될 수도 없지요. 육체가 있는 영적 존재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사람은 신자(信者)와 불신자(不信者)로 나뉘는데, 신자는 죽은 다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낙원을 거쳐 천국에 들어가게 되고, 불신자는 음부에서 무저갱을 거쳐 지옥으로

로 간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음부에 마귀가 있는데, 마귀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이 땅입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4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마귀가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한 장면이 나옵니다. 광야가 어디입니까? 이 땅 아닙니까? 곧 이 땅이 음부요, 마귀의 왕국이라는 겁니다. 종합해보면 예수를 안 믿고 죽은 불신자의 영혼이 귀신이 되어 이 땅을 떠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고전10:20)라고 했습니다. 제사를 지낼 때 누구 제사를 지냅니까? 저도 예수 믿기 전에 한 가정의 장손이요, 장남으로서 많은 제사를 지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곧 귀신이라고 성경은 밝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죽은 조상이 귀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시편 106편 28~29절에도 “저희가 또

바알브울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격노케 함을 인하여 재앙이 그 중에 유행하였도다”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은 자에게 제사하며 음식을 먹는다 하여 격노하신 하나님이 재앙을 내린 사건입니다. 이것을 보더라도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이 이 땅에서 제사를 받는 영적 존재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귀신은 무조건 내쫓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총회장 이초석 목사

그런데도 귀신 쫓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증거라고 들이미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 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내게

서 떠나가라 하리라”(마7:22~23). 이 말씀은 귀신을 쫓는 게 잘못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게 하시는 경고입니다. 여기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란 돈 받고 병을 고친다든지, 돈 받고 안수기도를 해주는 자를 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에 보면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권능과 복음은 다 하나님께 받은 것이기 때문에 사리사욕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되며, 오직 은혜로 받은 것을 은혜로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돈을 받고 권능을 행하는 것은 권능이 자기 것인 줄 아는 것이니 불법 아닙니까? 괜히 잘 알지도 못하면서 성령 훼방죄를 짓지 마시다. 다른 죄는 일흔 번에 일곱 번도 사함을 받으나 성령 훼방죄는 금세와 내세에 사함이 없습니다(마12:32~32).

사도행전 10장 38절에는 귀신을 쫓는 것을 ‘착한 일’이라고 하였고, 마가복음 1장 27절에는 ‘권세 있는 새 교훈’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 2/3가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일이었고, 누가복음 13장 32절을 통해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제 삼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귀신이란 높은 병과 저주와 가난과 고통과 죄악을 가져다주는 원인 제공자이기 때문입니다.

거미를 없애야 거미줄이 없어진다

귀신은 총이나 칼로 쫓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쫓을 수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오신 성령이 충만할 때 쫓을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총알이 장전된 총과 같아 방아쇠만 당기면 총알이 나가 짐승을 잡는 것처럼, 성령 충만할 때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귀신은 영존체라 죽일 수는 없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든 다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늘 성령으로 우리의 영을 충만케 채워야 합니다. 빈 공간이 생기면 그것들은 우리 육체를 자기 집 삼아 다시 들어올 것입니다(마12:44~45).

여러분, 귀신이 어떤 존재인가 보다 중요한 것은 귀신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조건 쫓으세요. 기분이 우울해도 쫓고, 사업이 안 돼도 쫓고, 일이 꼬일 때도 쫓으세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당신에게 임하도록 하세요. 할렐루야!

:: 객원컬럼 ::

:: 오늘의 메시지 ::

인생도 반쯤이 되나요?

구슬이 서 말이라도...

교회에서 운행하던 차가 바뀌었습니다. '자동차가 다 거기서 거기지.' 그런데 이게 웬걸요? 기어, 핸들, 브레이크 등 주요 기능이야 대동소이하겠지만 제조회사가 다르고, 제작 연도가 다르다보니 모든 게 전혀 생소하기만 합니다. 익숙하지 않으니 실수만 거듭했지요.

예전엔 키를 돌려 시동을 걸었다면 이제는 버튼을 눌러 시동을 겁니다. 심지어 연료주입구 개폐 장치는 아무리 찾아도 없더니 운전석 바닥에 붙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여기저기 버튼은 잔뜩 붙어 있는데 이게 무슨 장치인지, 어디에 사용하는 기능인지 몰라 설명서를 들여다보며 한참 동안 씨름해야 했습니다.

실수를 줄이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 새로운 차량에 빨리 익숙해지는 것뿐입니다. 그러려면 이전 차에 대한 경험을 빨리 지워야 합니다. 머리로는 대충 파악이 된 것 같은데 몸이 아직 적응이 될 뻔했다면, 반복해서 적용하고 또 적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몸에 배여 자연스레 익숙해질 때까지...

우리 모두는 이제 차를 바꿔 댔습니다. 세상의 부귀영화를 바라고 달리는 차가 아닙니다. 영생을 향해 가는 차입니다!

때문에 이제 이전 차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과감히 버려야 합니다. 차가 바뀌어 시동 거는 방법이 달라졌듯 삶의 우선순위도 달라져야 합니다. 디젤차에서 가솔린 차로 바뀌었으면 당연히 연료를 바꿔 넣어야 하듯, 영생을 향해 가는 차라면 세상

소망을 버리고 천국 소망을, 세상 욕심을 버리고 믿음을 가득 채워 넣어야 합니다.

1815년, 나폴레옹은 인생의 마지막 명운을 건 워털루 전투에서 패배해 세인트헬레나 섬에 유배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6년 뒤인 1821년, 그는 결국 그곳에서 재기하지 못하고 사망하고 말았죠. 그즈음에 그는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오늘 나의 불행은 언젠가 잘못 보낸 시간의 보복이다."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회자 되는 삶의 트렌드 중 하나가 '워라벨'(work-life balance: 일과 삶의 균형)이라고 합니다. 일 중심으로 살아온 것을 탈피하여,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며 여유 있게 즐기면서 살자는 제안입니다. 얼핏 듣자 하면 매우 지혜로운 의견인 것 같지만, 자칫 잘못하면 스스로 게으름의 덫에 걸릴 수 있습니다.

인생도 반쯤이 되던가요? 한 번뿐인 인생이어서 일생이겠지요. 모든 자원이 유한하다지만 시간만큼, 기회만큼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말씀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는 의미를 다른 번역본은 '기회를 사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회일까요? 영생을 대비할,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도록 신부 단장할 바로 그 기회가 아닐까요?

신현명 목사
yeddo1@hanmail.net

호수에서 작은 배로 승객을 실어 나르는 늙은 사공이 있었다. 그 배의 한쪽 노에는 '믿음', 다른 쪽 노에는 '실천'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한 승객이 이를 이상히 여겨 사공에게 물었다. 그러자 노인은 "한번 보시오."라며 '믿음'이라 쓰인 노를 힘차게 저었다. 배는 원을 그리며 제자리에서 맴돌았다. 이번에는 '실천'이라 쓰인 노를 저었다. 배는 역시 원을 그리며 제자리를 맴돌 뿐이었다. 이번에는 두 개의 노를 함께 저으니 배는 물살을 가르며 앞으로 나아갔다.

신앙인의 삶은 바로 이런 것이다. 행함 없는 믿음과 믿음 없는 행함은 모두 제자리를 맴도는 배와 같다. 그래서 전진하는 신앙, 열매 맺는 신앙이 되려면 행동하는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받은바 복음을 행동에 옮기고 실천해야 한다. 구슬이 아무리 많으면 무엇 할 건가? 꿰어야 보배인 것을. 성경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한다(약2:26).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약2:21). 기생 라합은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숨겨주는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약2:25), 바울 또한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고 교훈한다(빌4:9). 사도 요한 역시 말씀 씌워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기록한다(계1:3).

우리는 신앙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성도는 행동하는 신앙을 통해 믿음의 열매를 맺어 주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이 라는 칭찬을 받고, 이 땅에서도 주시는 풍성함을 누리며 증거하는 삶이 되어야 할 것이다.

"아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 것인줄 알고자 하느냐"(약2:20).

김상욱 목사



:: 세상을 보는 창 ::

:: 생명의 말씀 ::

낮은 곳으로 흐르는 사랑

축복과 감사라는 쌍둥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것을 머리로는 잘 알고 있는데 가슴으로 깨닫기가 쉽지 않다. 머리에서 가슴까지 약 30cm인데 어떤 사람에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감동하기까지 수십 년이 걸리고, 어떤 사람은 평생 깨닫지 못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사랑은 물처럼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사랑이다. 낮은 곳, 즉 약한 사람, 가진 것 없는 사람, 고통 받는 사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친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가 아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표현했다. 사랑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하나님은 이사가 선지자를 통해 유다의 멸망을 예고하셨다. 그 이유는 고아와 과부를 약탈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으며, 레위기 19장 14절을 통하여 하나님은 '듣지 못하는 사람을 저주해서도, 눈이 먼 사람 앞에 걸려 넘어질 것을 놓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다. 왜일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낮은 곳으로 흐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관심은

왕궁 같은 높은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고아와 과부들과 같이 낮은 곳에 있다. 낮은 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가 머물렀고 넘치는 사랑이 흘렀던 것이다.

하나님은 자녀들이 고통 받는 것을 참지 못하신다. 그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지 않을 수가 없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는 하나님께 흥정을 잘해서 아들을 낳은 것이 아니다. 그것은 간절한 기도였다. 낮은 곳으로 흐르는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간절함을 무시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불평하기보다 오히려 감사해야 할 것은 고난의 낮은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기 때문이다. 마음이 높고 교만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고일 수가 없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 사랑이 고이게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은 유익이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훈련이 된다. 재물이 닳칠 때 오히려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고 찬양하였다. 어떻게 자식을 잃고 재물을 다 잃었는데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을까? 오히려 고난의 자리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이다.

이정금 전도사

가장 좋은 것은 범사에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다. 그러면 '축복'이라는 이름을 가진 좋은 친구들이 몰려들 것이다. 화해 친구, 물질 친구, 건강 친구, 만사형통 친구, 기쁨 친구..., 이런 축복 친구들과 함께 행복을 누릴 것이다.

우리 민족은 감사는 할 줄 모르고 복만 받으려고 무척이나 노력했다. 복(福)자를 이불에도 새겨 넣고, 베개에도, 밥그릇에, 옷고름에도 새겨 넣고, 항상 정한 수 떠놓고 복을 달라고 빌었다. 그러나 축복을 받으려면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감사하면서부터 축복은 몰려온다. 감사는 축복을 부르는 신호다. 축복을 달라고 말하는 것을 중단하고 그만큼 감사를 해보라. 그러면 축복이 임할 것이다.

물을 연구한 에모토 마사루는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는 책에서 물을 향하여 욕을 퍼부으면 물의 육각형 모양이 깨어지고, '고맙습니다'라고 말하면 물이 완전한 육각수로 바뀐다는 것을 실험으로 확인했다. 그리고 물 위에도 '망할 놈'이라고 써서 띄어놓고 욕을 악을 들려주면 육각형이 제멋대로 찌그러지고, '고맙습니다'는 글을 써서 띄어

놓으면 물이 완전한 육각형으로 바뀐다는 것을 실험으로 입증하여 말했다. 우리 인체는 70%가 물로 되어 있다. 그러므로 감사하는 말을 하며 살면 우리 몸이 좋은 영향을 받아 얼마나 많이 좋아지겠는가.

감사하는 자체가 축복이다. 감사는 무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감사하면 축복이 임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무엇이 생기고 잘 되어서가 아니라 감사하는 자체가 축복이다. 우리 주변에는 우리에게 주어질 축복이 많이 대기하고 있는데, 감사하지 않아서 축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것이 많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밀물처럼 축복이 들어오려다가 감사가 없어 썰물처럼 축복이 나가버리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 생활이 그랬다. 나중에는 아예 감사는 하지 않고 불평만 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는 비참한 인생의 종지부를 찍어야 했다.

축복을 원하거든 먼저 감사하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고후9:15).

임택함 목사
cjcc1004@hanmail.net

내가 피땀을 쏟았다, 이놈들아~

이번 31기 목사후보생 훈련과정은 참으로 고된 행군이였다. 나는 암 수술 두 번과 항암치료를 8월에 마쳤으니 몸 상태가 정상이 아니었다. 발바닥과 발가락을 바늘로 찌르는 것 같은 통증으로 자다가도 벌떡 깨니 밤이 편치 않고 피곤이 떠나지 않았다. 종합병원에서는 통증 줄이는 약으로, 한의원에서는 뜸과 물리치료, 침으로 치료 받았지만 증상은 더 심해질 뿐이었다. 신경이 손상되면 복구가 안 된다는 의사의 말은 평생 안고 살아야 될지도 모르는 천형으로 받아들이라는 뜻이었다. 이런 와중에 금식을 포함한 기도원 수련 과정은 내게는 엄청난 도전이었다. 까짓것 한번 이겨보리라 마음먹었다. 이런 과정이 항암치료 마친 후 시작되니 그것이 위안이 되었다. 여태까지 평강 속에서 지내도록 하신 하나님이 이번에도 지켜주실 것을 굳게 믿었다. 시간이 촉박하여 부랴부랴 짐을 싸서 차량에 동승하여 출발하고 생각하니 병원 약을 하나도 챙기지 못한 것 아닌가. 진통제, 당뇨, 고지혈약과 그 외에 먹던 약들을 하나도 챙기지 못했다. 특히 진통제가 없이는 견디기 힘들 것이 예상되었지만 어쩔 수가 없었다. 총회장 목사님은 거의 매일 우리 수련생들을 기도 중 몇 번씩이고 안수해주셨다. 매일매일 통증이 줄기 시작하여 10일 정도 지날 때는 통증이 거의 사라지고 완치될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다. 목사님께 간증하니 몹시 기뻐하시며 ‘할렐루야! 이런 간증이 나올 줄 알았다.’ 하셨다. 금식이 힘들지 않았느냐 사람들이 묻는다. “배고픔을 느낄 여유가 없었습니다.” 대답했다. 새벽 5시부터 밤늦게까지 기도와 교육, 시험 때문에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었다. 목사님이 몰아붙이실 땐 정말 무섭다. 모두 훈련과정에 낙오할지 모른다는 두려

움에 긴장을 풀 수 없었다. 예배가 끝나고 갑자기 나를 불러내셔서 찬양인도를 해보라고 하셔서 ‘나같은 죄인 살리신’을 하려고 하니 “야, 이놈아, 그런 찬송 말고 신나고 힘찬 찬송으로 성도들을 이끌어야지. 다시 해봐.” 하신다. 당황하여 마땅한 찬송이 생각나지 않아 찬송가를 한참 동안 뒤적거리자, “야, 이놈아. 들어가라. 찬양인도도 못하는 놈이 무슨 목사냐. 넌 안 되겠다. 이번에는 안 되겠어.” 하셨다. 가슴이 철렁하여 속소로 돌아와서 생각했다. 대학원 나왔다는 놈이 성경시험성적이 형편없다고 혼이 나고 찬양 인도도 제대로 못한다고 혼이 나니 이번에 목사안수를 못 받을 수도 있겠구나... 별별 생각이 다 들었다. 목사님과 함께 식사 도중에 말씀드렸다. “제가 이번에 목사안수 받지 못하면 뭘 할 수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이미 세상일을 버린 지 8년이니 주님께서 인도하시지 않으면 제가 할 일이라고는 아파트 경비 정도일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방황하다가 갈 길 잃고 삶을 마감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전도사로서 보람을 느끼며 존중받으면서 살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저는 꼭 안수 받고 이 교단에 붙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말씀드리니 껄껄 웃으며 흐뭇해 하셨다. 목사님께서 “너는 좋은 학교 나왔다는 생각을 버려라.” 말씀하신 적이 있다. 또 ‘이제 너를 버려라’고도 권면하셨다. 암 수술 2번에 육체적 시련을 통과하고 마지막 남은 자존심마저 버리는 나의 고백에 즐거워하신 것 같다. 목사님 교육은 시작하면 3~4시간은 족히 쉬 없이 진행되었다. 35년간의 깨달음을 전수하시는 목사님의 노고는 말할 수 없었다. 피를 토하는 사자후였다. 우리들의 모자란 점을 매일매일 질타하며 몰아붙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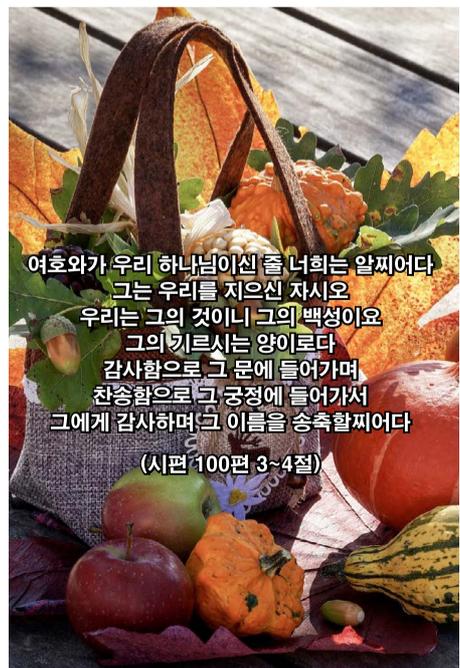
셨다. 교육과정을 거의 마치실 때 하시는 말씀은 우리의 고개를 못 들게 하셨다. “이놈들, 너희 같은 놈들을 목사 만들기 위해 얼마나 내가 힘든지 10만 명 모아놓고 설교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너무 힘들다. 야, 이놈들아. 내 평생에 이렇게 힘들어 피땀을 쏟은 건 처음이다.” 미안하고 송구스러워 할 말이 없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보다 더 큰일 하라고 하셨다. 내가 피땀을 쏟으면서 너희들에게 몰두하는 것은 나보다 감절의 능력을 가진 제자가 나오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나는 매일하던 사우나를 어제 처음 했다. 부디 내 능력을 뛰어넘는 제자가 되어 내 뒤를 이어라.” 피를 토하는 훈육의 말씀을 노트에 옮겨 적으니 70페이지가 넘었다. 다시 정리하니 온전히 목사님의 35년간 경험과 지혜의 잠언집이다. 솔로몬은 내생을 모르는 왕이었다. 그의 잠언보다 목사님의 잠언이 얼마나 깊이 있고 영감 있는지 모른다. 내게는 앞으로의 목회에 성경과 함께 꼭 새겨가며 깊이 상고해야 할 귀한 말씀들이다. 어디서 이런 말씀들을 접할 수 있겠는가. 마음에 새기고 뼈에 새길 말씀들이다. 이 말씀 중에 얼마나 내가 온전히 새길 수 있을까. 두고두고 목회에 크게 약이 될 처방이고 내가 흔들리지 않고 올곧게 목자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귀한 영적 자양분이다. 자, 이제 무엇이 두려우리오. 내 뒤에는 목사님의 기도가, 주님의 공의로운 손이 함께하시니. 전에 숨차게 오르던 길을 아무 생각 없이 쉬 없이 오르고 보니 정말 감사하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목사님과 주님의 뜻에 합한 자 되도록 저를 축복해주시고 인도해주시시오.” 간절히,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광주 전도사
leekjlkj@naver.com

정직을 가까이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로 시작하는 아굴의 두 가지 소원 중 그 첫 번째가 “허탄과 거짓말을 자신에게서 멀리 해달라는 것”(잠30:7-8)입니다. 그렇다면 거짓말은 언제 어디서 처음 시작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에덴동산에서 행복하게 사는 아담과 하와에게 뱀의 탈을 쓰고 다가온 사탄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사탄은 가짜를 진짜처럼 만드는데 탁월한 재주가 있었습니다. 그 속임에 넘어간 아담과 하와는 파멸의 길을 걷게 되었고, 결국 인류에게 죄악과 고통만을 남겨 주었죠. 살다 보면 정직하기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실감할 수 있습니다. 본의 아니게 사실을 숨기거나 거짓말을 해야 할 경우가 많이 있다고 사람들은 강변합니다. 마음은 인격의 심장부라 할 수 있고, 입술은 그 인격을 밖으로 표현하는 기관입니다. 따라서 지혜는 단순히 머리가 영리하고 좋은 것이 아니라 그 인격의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참된 지혜를 의미합니다. 인격이 뒷받침되지 못하는 지혜는 오히려 죄악을 부추기는 사악함의 도구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97년에 개봉된 ‘라이어 라이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주인공 짐 캐리는 법정에서의 승리를 위해서라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변호사입니다. 보다 못한 6살 된 아들은 자기 생일에 ‘아버지가 하루 동안 진실만을 말하게 되고, 오히려 정직한 변론을 통해 법정에서 승소하는가 하면 무엇보다 정직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를 깨닫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주인공의 대사 중에 ‘정직하니 이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다’는 말이 인상적인데, “정직을 말하면 네 속이 유쾌하리라”(잠23:15-16)는 말씀을 실감케 하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셨다(잠2:7)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항상 정직과 진실함으로 벼를 삼아야 하겠습니다.

김정옥 전도사



메트로놈

:: 영생에 이르는 길 ::

음악을 하는 사람들은 ‘메트로놈’이라는 도구를 자주 사용합니다. 그 이유는 소리를 규칙적으로 발생시켜서 음악의 빠르기를 기계적으로 맞추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이 기계는 다양한 사람들의 감각을 한결같은 빠르기로 맞출 수 있게끔 기준이 됩니다. 세상일이 어려운 이유는 그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출근 시간은 몇 분 전까지 도착해야 괜찮을까? 축의금은 얼마를 내야 할까? 운동을 몇 시간 해야 몸에 좋을까? 다 같이 먹은 음식 값은 나눠서 내야 할까? 내가 더 나이가 많은데 다 내줘야 할까?’ 등등 참 어려운 일들입니다. 저는 애매한 결정을 해야 할 때마다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제 아버지입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아버지의 조언을 따라 행동하면 결코 실수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여태까지 살아오신 경험을 비추어 항상 적절한 기준을 조언해 주십니다.

기준을 정하는 조연뿐만이 아닙니다. 아버지는 정말 한결같은 분이십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한 시간 기도하시고, 5시 반에 사우나를 다녀오시고, 7시 40분에 예배를 드리시고, 오후 6시에 한 시간 기도하시고, 자기 전에 기도하십니다. 예배나 다른 교회 일을 제외하고는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한결같으십니다. 가끔 보면 아버지는 기계가 아닐까 싶을 만큼 정확하십니다. 재미있는 건 우리 가족들은 다른 조연은 아버지께 많이 구하지만, 신앙이나 기도는 잘 구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신앙이나 기도의 기준은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기에 정말 힘들기 때문에 아예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사실 아침에는 같이 기도하지만 저녁에는 세상으로 도망가기 일쑤입니다. 그럴 때마다 ‘이 잔을 피하게 하소서’라고 핀잔을 주셔서 가끔 씩은 정말 이 잔을 어떻게 피할까 궁리하지만, 한결같은 아버지의 신앙이 존경스럽고 이렇게

가르쳐주시는 것에 감사합니다. 그렇게 미꾸라지같이 잘 빠져나갈 때가 많지만, 신기하게도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잠27:17)는 말씀처럼, 우리가 아버지 곁에서 신앙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라고, 기도가 우리도 모르게 깊어지는 것을 느낍니다. 예전에는 어떻게 그렇게 오래 기도하는지 상상도 못했지만, 요즘은 기도를 한 시간씩도 잘하고 성경 말씀으로 부모님과 즐겁게 대화하기도 합니다. 분명히 아직 아버지의 기준에는 한참 못 미치는 건 사실이지만, 이렇게 그 신앙이 스며들다 보면 언젠가는 저의 신앙도, 믿음 생활도 더욱 성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니 하나님께서 인생의 기준이 될 만한 사람을 곁에 주신 건 정말 대단한 축복인 것 같습니다.

김대화
realdialog@naver.com